

죽음의 부정

어니스트 베커

헌사

영웅주의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무엇보다 역설적인 선물을 본의 아니게 선사하신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리며.

제사

Non ridere, non lugere, neque detestari, sed intelligere. (비웃거나 한탄하거나 혐오하지도 않고 오직 이해할 것.)

— 스피노자

차례

헌사

제사

서문

저자 서문

1 장. 머리말: 인간 본성과 영웅적인 것

1 부. 영웅주의의 심층심리

2 장. 죽음의 공포

3 장. 정신분석학 기초 개념의 재정립

4 장. 필수적 거짓으로서의 인간 성격

5 장. 정신분석가 키르케고르

6 장. 프로이트의 성격 문제를 다시 거론하다

2 부. 영웅주의의 실패

7 장. 인격체가 부리는 주문—비자유 의 핵심

8 장. 오토 랑크—키르케고르 정신분석의 종지부

9 장. 정신분석의 현재 결과

10 장. 정신병 개관

3 부. 회고와 결론: 영웅주의의 딜레마

11 장. 정신분석과 종교: 영웅적 개인이란 무엇인가?

찾아보기

서문

어니스트 베커의 병실을 찾아갔을 때 그가 맨 처음 꺼낸 말은 다음과 같다. “최후의 순간에 절 찾아오셨군요. 제가 죽음에 대해 쓴 모든 것을 드디어 검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여줄 기회가 찾아온 거죠. 제가 과연 존엄하고 남자답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973년 말엽 《사이콜로지 투데이》 사무실에 『죽음의 부정』이 배달되어 검토용으로 내 책상에 놓였다. 그로부터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어니스트 베커를 인터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 인터뷰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12월 6일 밴쿠버에 있는 그의 자택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아내 마리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가 막 병원에 실려 갔으며 암 말기여서 일주일 이상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뜻밖에도 이튿날 그녀가 내게 전화를 걸어, 만일 그에게 아직 기력이 남아 있고 머리가 맑을 때 병원으로 찾아온다면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전해 왔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서둘러 밴쿠버로 갔다. 죽어가는 이의 사적인 세계를 침범하는 것보다 주제넘은 유일한 일은 그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기에.

어니스트와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내 깊은 대화에 몰두했다. 죽음이 임박했고 기력이 쇠잔한 터라 한담을 나눌 여유가 없었다. 우리는 죽음의 면전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암을 앞에 두고 악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국 어니스트는 기력이 다 떨어졌다. 시간도 다 떨어졌다. 우리는 잠시 멧쩍게 머뭇거렸다. 최후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은 힘든 일이며 그가 우리의 대화를 지면상에서 보지 못할 것임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이별주로 제격인 약용 세리주가 종이컵에 담긴 채 침대맡 탁자에 놓여 있었다. 함께 세리주를 마신 뒤에 나는 병실을 나섰다.

사반세기 전 그날은 내 죽음의—따라서 내 삶의—신비와 관계를 정립한 결정적 계기였다. 어니스트의 용기 있는 모습, 고통을 참는 대가로 얻은 명료함, 사상에 대한 열정으로 한 계절 동안 죽음을 막아낸 태도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죽음의 영웅적 고통을 겪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나의 특권이였다.

베커는 사후에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적 지도 제작자이자 영혼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의사로 널리 평가받았다. 그가 처방한 쓴 약—필연적 죽음의 공포에 대한 사색—이 역설적이게도 필멸성에 감미로움을 더하는 약제임을, 우리는 내키지 않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죽음의 부정』과 『악으로부터의 도피』에 나타난 베커의 철학은 네 가닥의 끈으로 꼰 수 술이다.

첫 번째 가닥. 세상은 끔찍하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자연에 대한 베커의 해석은 월트 디즈니와 공통점이 거의 없다. 어머니 자연은 이빨과 발톱을 피로 물들인 채 자신의 피조물을 파괴하는 잔혹한 암캐다. 베커 말마따나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 세계에서 생명체의 일상적 활동은 “온갖 종류의 이빨로 물어뜯고, 식물의 줄기와 동물의 살과 뼈를 어금니로 짓이기고, 기빠하며 육질을 게걸스럽게 식도로 내려보내고, 먹이의 정수를 자신의 체제에 통합하고, 그리고 나서 악취와 가스를 내뿜으며 잔여물을 배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닥. 인간 행동의 기본적 동기는 자신의 원초적 불안을 다스리고 죽음의 공포를 부정해야 하는 생물학적 욕구다. 인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죽을 운명인 세상에서 결국 무력하고 버려진 신세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포의 근원이다. 무에서 생겨나 이름, 자의식, 깊은 내적 감정, 삶과 자기표현에 대한 고통스러운 내적 열망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죽어야 한다는 것.”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어니스트 베커는 죽음과 죽어감의 공론화라는 문화 혁명에 앞장선 기묘한 동맹이었다. 퀴블러 로스가 우리로 하여금 품위 있게 죽는 법을 실천하게 해주었다면 베커는 죽음에 대한 성찰이 두려움과 공포와 존재론적 불안을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웠다.

세 번째 가닥. 죽음의 공포가 어찌나 압도적인지 우리는 이 공포를 무의식에 묻어두려 한다. ‘성격의 필수적 거짓’은 무력함의 고통스러운 자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다. 모든 아이는 성인에게서 힘을 빌리며, 신과 같은 존재의 성질을 내면화함으로써 인격을 창조한다. 내가 전능한 아버지와 같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인격의 방어 기제—빌헬름 라이히가 ‘성격 갑옷’이라고 부르는 것—안에 압전히 머무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끼며 세상이 만만한 척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시간이 망가뜨릴 수 없는 영혼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억압하고, 불멸을 사기 위해 쾌락을 희생하며,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푹푹 싸맨다. 우리가 성격의 방어 요새 안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 삶은 우리에게서 달아난다.

사회는 우리의 타고난 무능력함에 맞서는 두 번째 방어선을 치는데, 그것은 영웅 체계를 만들 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속적 가치가 있는 일에 동참하여 죽음을 초월한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국을 정복하고 신전을 건설하고 책을 쓰고 가족을 이루고 부를 쌓고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

고 정보 사회와 전 세계적 자유 시장을 창조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짜 불멸을 얻는다. 인간의 삶에서 주된 임무는 영웅이 되어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모든 문화는 은밀한 종교성을 가진 교묘한 상징 체계를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문화 간의 이념적 갈등이 본질적으로 불멸 기획 사이의 전투, 즉 성전聖戰임을 뜻한다.

베커 덕에 우리는 기업과 국가를 이끄는 무의식적 동기가 겉으로 천명된 목표와 거의 무관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심리학에 대한 그의 항구적 기여 중 하나다. 비즈니스 세계나 전쟁터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경제적 필요나 정치적 현실보다는 자신이 영속적 가치가 있는 것을 얻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켜야 할 필요성과 관계가 있다. 이를테면 최근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을 생각해 보라. 미국의 동기는 현실적인 경제적·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무신론 공산주의’를 패배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요구였다.

네 번째 가닥. 악을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우리의 영웅 기획은 더 많은 악을 세상에 불러들이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 인간의 갈등은 나의 신과 너의 신이 대적하고 나의 불멸 기획과 너의 불멸 기획과 대적하는 생사의 투쟁이다. 인간에게서 비롯한 악의 뿌리는 인간의 동물적 본성이나 영역을 지키려는 공격성이나 타고난 이기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느끼고 필멸성을 부정하고 영웅적 자아상을 얻으려는 욕구다. 최고를 향한 욕망이야말로 최악을 낳는 원인이다. 우리는 세상을 쓸어버리고 완벽하게 하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신의 적으로부터 정화하고 악을 섬멸하고 인간의 눈물에 바래지 않는 석고 도시, 즉 천년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한다.

어쩌면 베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악의 학문을 창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쟁, 인종 청소, 집단 살해 같은 잉여적 악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유사 이래 인류가 (카를 융이 ‘그림자 측면’이라고 부른) 열등감, 자기중요, 죄책감, 적대감에 대처한 방식은 이를 적에게 투사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세상을 정화하는 사회적 제의이며 그 제의에서 적은 더럽고 위험한 무신론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베커는 명쾌하게 꿰뚫어 보았다. 다하우, 케이프타운과 미라이, 보스니아, 르완다는 유대인, 흑인, 더러운 공산주의자, 무슬림, 투치족 같은 희생양이 어디에나 필요함을 암울하게 증언한다. 전쟁은 의로움을 위협하는 비겁한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의 용감한 청년을 희생하는 죽음의 포틀래치다. 전쟁에서는 피를 많이 흘릴수록 좋다. 사상자가 많을수록 거룩한 대의, 운명의 편, 신의 계획을 위한 희생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전체와 하나가 되고 고귀한 대의에 목숨을 바치고 우주적 힘에 봉사하려는 욕망인 우리의 이타적 동기가 세상을 시체 안치소로 바꾼다는 베커의 급진적 결론은 모든 사람과 나라에 심란하고도 혁명적인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자신이 영웅적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베커가 대중에게 읽히지 않는 이유 중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자신이 의롭다는 확신을 사기 위해 얼마나 쉽게 피를 흘리는지 까발려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자신이 별거벗었음을 부정하고 영광을 입으려는 욕구 때문에 황제가 별거숭이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인간 조건을 이토록 암울하게 진단한 뒤에 베커가 내리는 처방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기적의 치료약, 인간의 신격화, 계몽된 미래, 이성의 승리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베커는 파괴적이지 않은 영웅주의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사회 일반에 대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무의식적 개인으로 이루어진 대중이 전쟁의 도덕적 등가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학에서 밝혀낸 바 사회는 언제나 수동적 신민, 강력한 지도자, (우리가 죄책감과 자기증오를 투사하는) 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알면 ‘대상적 증오’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증오해야 하는 것은 인간 희생양이 아니라 빈곤, 질병, 억압, 자연재해 같은 비인격적 대상이다. 증오는 불가피하지만 여기에 지성과 지식을 접목하면 파괴적 에너지를 창조적 쓰임새로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다른 개인은 지혜에 이르는 고대의 철학적 길을 걸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처럼 베커도 우리에게 죽음을 연습하라고 충고한다. 죽음에 대한 자각을 기르면 미망에서 깨어나고 성격 갑옷을 벗고 의식적으로 공포를 직면할 수 있다. 이 자기분석의 길을 따르는 존재론적 영웅이 평균적 인간과 다른 점은 자신이 사로잡혀 있음을 안다는 것이다. 그는 성격의 미망 속에 숨지 않고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직시한다. 미망에서 깨어난 이 영웅은 대중문화의 상투적 영웅상을 거부하고 우주적 영웅주의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무비판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의존성의 사슬을 떨쳐버리고 선택과 행위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와 끈기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영웅적 개인은 죽음을 자발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감으로써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키르케고르적 도약을 단행하여 ‘우주의 신성한 활력’을 신뢰할 수도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의 신이 품고 있는 신비한 목적은 우주적 진화의 거대한 드라마로 표현된다.

몇몇 사람들이 부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길고 어두운 밤에서 깨어 털리히가 말하는 ‘초도덕적 양심’—민족적이기보다는 보편적인 윤리—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징조가 보인다. 베커의 책이 인정받는 것도 그런 징조 중 하나다. 우리의 미래 임무는 각 사람이 지구촌—친족의 연합—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악용하여 편협하고 부족적이고 편집증적인 성격으로 자신을 감싸 더 피비린내 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지, 버려진 자들을 모아 공감의 공동체를 이룰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간이 자유의 수단을 소유하는 한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은 가정법으로 진술해야 한다.

어떤 전문가도 우리가 번성할지 몰락할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악의 지배를 늘리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줄이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내일의 대본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결국 베커가 우리에게 남긴 희망은 지독하게 연약하고 놀랍도록 강력하다. 그가 말한다. “우리를 추한 몰골로 살게 하는 것은 위장된 공포이지 자연적인 동물적 본성이 아니다. 이 말은 악 자체를 비판적 분석에, 또한 생각건대 이성의 지배에 회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일 어느 먼 미래에 이성이 우리의 자기파괴적 영웅주의를 정복하여 우리가 스스로 퍼뜨리는 악의 양을 줄일 수 있다면, 죽음의 부정과 악의 지배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해준 베커에게 큰 공로를 돌려야 할 것이다.

베커의 연구가 철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신학자에게 어떻게 쓰이고 계승되는지 궁금한 사람은 어니스트 베커 재단(The Ernest Becker Foundation, 3621, 72nd St., Mercer Island, WA 98040)에 연락하면 소식지와 강연 및 대회 공지를 받을 수 있다.

샘 킨

저자 서문

당분간 글쓰기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소비할 수 없을 만큼 글이 과잉 생산되고 있으니깐요. 이미 세상에는 진실이 어찌나 많은지요!

— 오토 랑크¹

존슨 박사가 말하길 죽음을 앞두고면 마음이 놀랍도록 집중된다고 한다. 이 책의 주된 논지는 그 긴 약과라는 것이다. 죽음의 관념, 죽음의 공포는 인간이라는 동물을 무엇보다 사납게 뒤쫓는다. 죽음은 인간 활동의 주된 원동력이다. 이 활동의 목표는 대체로 죽음이라는 숙명을 피하고 (죽음이 인간의 최종 목적지임을 부정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저명한 인류학자 A. M. 호커트는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다. 원시인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고, 인류학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죽음이 기쁨과 축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죽음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아일랜드 경야처럼) 축하할 사건이었으리라는 것이다. 호커트는 원시인이 (현대인에 비해) 유치하며 현실에 공포를 느낀다는 통념을 반박하고자 했다. 원시인에 대한 이러한 재조명은 이제 인류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가 실제로 인간 조건에 보편적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호커트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원시인이 죽음을 종종 찬미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그 이유는 죽음을 궁극적 승격, 즉 더 고등한 형태의 삶으로 올라가 일종의 불멸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 제의라고 믿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현대 서구인은 이런 식으로 믿지 못하는데,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심리 구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는 죽음의 공포가 보편적임을 밝히고자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의 보편성은 인간학의 여러 분야에서 수집된 자료를 하나로 묶는 끈이며 (사실의 산더미 아래에 묻히고 ‘진정한’ 인간 동기에 대한 지리한 논란으로 모호해진) 인간 행위를 놀랍도록 명료하게 이해하는 열쇠다. 우리 시대의 식자는 자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소비할 수 없을 만큼 과잉 생산되는 진실이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진실이 호리호리하고 재빠르며 일단 발견하기만 하면 인류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20 세기가 몇십 년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진실에 짓눌려 질식할 지경이다. 빼어난 글이 이토록 많고 천재적 발견이 이토록 많고 이 발견의 넓이와 깊이가 이토록 거

대한데도, 세상은 여전히 악의 길을 걷고 마음은 여전히 침묵한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세계 박람회에서 이름난 과학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근처에서 신무기를 시연하는 소음 때문에 연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연사는 이 불필요한 훼방꾼을 참아주면서도 미래는 군사가 아니라 과학에 달려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하지만 1차 대전은 지구상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를 만민에게 보여주었다. 올해 전 세계 국방 예산이 2040억 달러인 것을 보면 우선순위는 여전히 분명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조건은 어느 때보다 열악한데 말이다.

독자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쓸모없는 과잉 생산되고 있는 글 무더기에 왜 두툼한 책 한 권을 보태는 거냐고. 물론 여기에는 취미, 소명, 끈질긴 희망 같은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다. 경험의 통합, 형상, 더 큰 의미를 향한 충동인 에로스도 빼놓을 수 없다. 내 생각에 지식이 쓸모없이 과잉 생산되는 한 가지 이유는 사방에 흩어진 채 오만 가지 목소리로 앞다퉈 외쳐대기 때문이다. 지식의 하찮은 단편들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지는가 하면 중대한 세계사적 통찰은 눈길을 끌지 못한 채 처박혀 있다. 이것은 박동하는 생명의 중추가 없기 때문이다. 노먼 O. 브라운은 위대한 세상에는 에로스가 더 필요하고 분쟁이 덜 필요하다고 설교했다. 지성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입장을 통합하여 “불모의 무지한 논쟁”을 가라앉힐 수 있는 조화를 드러내야 한다.²

내가 이 책을 쓴 근본적 이유는 인간과 인간 조건에 대한 견해의 마벨탑에 조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다. 나는 인간학에서 종교에 이르는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사상을 아우르는 종합의 시대가 무르익었다고 믿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싫은 관점이라도 그 속에 진실의 고갱이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면 배척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간 지식의 문제는 반대 견해를 반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론적 구조 안에 포괄하는 것임을 점차 깨달았기 때문이다. 창조적 과정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어딘가 망가져야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내 말은 자신의 연구를 돋보이게 하려면 강조점을 과장하고 진실의 다른 버전에 대해 경쟁적으로 맞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저자는 자신의 과장에 휘말린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자인 정직한 사상가들의 견해에는, 그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표현했더라도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문제는 과장 아래 놓인 진실을 찾고 지나친 교언이나 왜곡을 잘라내어 진실을 제자리에 놓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수십 년간 타당한 진실들을 이렇게 짜맞추면서 문제들이 나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나는 프로이트와 그의 해석자와 계승자가 품은 사상과 현대 심리학의 정수라 할 만한 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으며, 마침내 성공을 거뒀다고 자부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내 학자적 영혼의 평안을 위한 시도이자 지적 사면을 위한 청원이다. 이 책은 내가 쓴 최초의 성숙한 저작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 책에서 이루고자 하는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심리학의 모든 논의를 (아직도 우뚝 선 산맥인) 키르케고르에 접목함으로써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을 개관하는 것이다. 이로써 나는 심리학적 관점과 신화종교적 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주된 바탕은 오토 랑크의 연구이며, 나는 그의 웅장한 사상 체계가 지닌 타당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랑크의 연구는 진작 이런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했다. 내가 이 점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거기서 이 책의 값어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랑크를 워낙 치켜세우다보니 여기서 몇 마디 소개를 해두는 게 좋겠다. 프레더릭 펄스는 랑크의 책 『예술과 예술가 Kunst und Künstler』를 일컬어 “아무리 칭송해도 모자란다”라고 평했다.³ 이 평가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당장 책을 집어든 기억이 난다. 학술서가 어떻게 “아무리 칭송해도 모자랄”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프로이트 자신의 저작조차 내게는 그저 칭찬에 값하는 정도였다. 말하자면 인간 정신의 산물로서 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펄스가 옳았다. 랑크는 (시쳇말로) 뭔가 달랐다. 그의 글은 단순히 칭송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눈부시게 탁월할 뿐 아니라 환상적이고 한량없고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통찰은 필요를 뛰어넘는 선물과 같다. 그 이유는 랑크의 천재성과 더불어 그의 사유가 지식의 여러 분야를 늘 넘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인류학 자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독자는 인류학적 통찰을 기대하겠지만, 그 밖에도 뭔가 다른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초전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즐거움을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전문가들이 선사하는 희열은 기껏해야 감당할 수 있는 희열일 뿐이다.

나와 랑크의 대면에서 바라는 결과 한 가지는 독자를 그의 책으로 곧장 인도하는 것이다. 랑크를 읽는 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내가 가진 그의 책 본문에는 메모, 밑줄, 느낌표 두 개 등 표시가 유난히 많다. 랑크는 오래전부터 내게 통찰과 성찰의 광택이었다. 여기서 내가 소개하는 랑크는 그의 사상적 윤곽, 즉 사상의 토대와 여러 기초적 통찰, 전반적 함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의 책에 담긴 아찔하리만치 풍부한 랑크가 아니라 앙상한 랑크다. 랑크에 대한 아이러니 프로고프의 개요와 찬사도 어찌나 정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인지, 간략한 평가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⁴ 랑크는 매우 장황하고 읽기 힘들고 풍성해서 일반 독자가 접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며, 한동안은 자신의 책이 그에 걸맞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나이스 닌이 새로 써주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이 책에서 내가 제시하는 것은 내가 이해한 랑크, 내 나름의 방식으로 빈 곳을 채운 랑크다. 독자가 그에게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의 체계를 간략하게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의 개인심리학만을 다루지만, 또 다른 책에서는 역사심리학에 대한 그의 도식을 개관할 것이다.

랑크를 들여다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프로이트의 명민한 동료이자 정신분석학회 초기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박식함을 동원하여 정신분석학의 저변을 넓히고

정신분석이 문화사, 신화, 전설의 이해에 실마리를 던질 수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고 생각한다(이를테면 초기작 『영웅의 탄생 Der Mythos von der Geburt des Helden』 과 『시와 전설 속의 근친상간 Das Inzest-Motiv in Dichtung und Sage』). 그들은 랑크가 한 번도 정신분석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자신의 억압에 점차 사로잡혀 프로이트 곁에서 누리던 안정되고 창조적인 삶에서 멀어졌으며 말년에는 개인적 불안정에 차츰 잠식되어 좌절과 고독 속에서 때 이른 죽음을 맞았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랑크가 프로이트의 극성스러운 제자로서 선불리 독창성을 추구하다 정신분석적 환원주의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 판단은 거의 전적으로 그의 1924 년작 『출생의 외상 Das Trauma der Geburt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Psychoanalyse』 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대개 거기에서 논의가 끝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랑크가 프로이트의 명민한 측근이자 열렬한 추종자로서 프로이트가 그에게 대학 교육을 제안하고 학비를 지원했으며 그는 정신분석학의 통찰을 문화사, 아동 발달, 예술심리학, 문학 비평, 원시적 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랑크는 다면적이면서도 지나치게 체계적이거나 자제력을 갖추지는 못한 신동이였다. 지적으로 뛰어난 테오도어 라이크라고나 할까.

하지만 이런 식의 요약은 전부 틀렸다. 알다시피 이런 평가는 대체로 정신분석학 모임 자체의 신화에서 비롯했다. 그들은 랑크가 프로이트에게서 돌아서 자기네의 불멸 상징을 축소한 것을—이것은 그들의 신랄함과 편협함을 랑크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한 것이다—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아닌 게 아니라 랑크의 『출생의 외상』 은 그의 비판자들에게 손쉬운 구실이자 그를 깎아내릴 정당한 이유가 되었다. 그 과장되고 불운한 책은 그의 공적 이미지를 훼손했다(비록 그 자신은 그 책을 재검토하여 훌쩍 뛰어넘었지만). 랑크는 단지 프로이트의 동료이자 정신분석학의 박식한 하인에 머무르지 않고 나름의 사상 체계를 독자적이고 완벽하게 구축했다. 그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섭렵해야 할지, 그 자료들이 모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았다. 특히 정신분석학 자체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정신분석학을 뛰어넘고 싶어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는 자신의 사상 체계가 가진 철학적 함의를 어렵듯이 알고 있었으나 이것을 풀어내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가 아들러와 융 못지않게 완전한 체계를 만들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의 사상 체계는 적어도 그들만큼 탁월하며 일부 측면에서는 더 탁월하다. 우리가 아들러를 존경하는 것은 그의 견고한 판단력, 직접적 통찰, 타협하지 않는 인도주의 때문이며 융을 우리러보는 것은 과학과 종교를 끌어안은 용기와 개방성 때문이지만, 랑크의 체계는 이 두 사람을 훌쩍 뛰어넘어 사회학을 가장 깊고 넓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함의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그 진면목을 발견하고 있다.

폴 로즌은 ‘프로이트의 전설’을 다룬 책⁵에서 재치 있게도 “어떤 저술가의 실수가 바로잡히는 데 이토록 오랜 세월이 걸렸다면 그는 지성사의 거물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크게 보면 매우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아들리, 융, 랑크는 일찌감치 프로이트의 기본적 실수를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가가 물어야 할 물음은 정신분석학 운동과 정신분석학 사상 자체의 성격에, 또한 대중과 학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 같은 수정이 그토록 무시당하거나 누적적 과학적 사유의 주된 운동에서 소외되었는가다.

진실의 산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에, 아무리 폭넓은 범위를 다루는 책이더라도 매우 선별적으로 진실을 고를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많은 주요 사상가들이 그저 지나가듯 언급된다. 이를테면 독자는 종교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 책에서 랑크에 그토록 의존하고 융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이유는 융이 명망가이고 뛰어난 해석자를 많이 거느린 반면에 랑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거의 누구도 그를 대변하여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랑크의 사상이 어렵기는 하지만 중심 문제들에 대해 늘 옳은 반면에 융은 그렇지 않으며 상당 부분이 쓸데없이 난해하기 때문이다. 융의 사상은 여기서 모호하고 저기서는 심오하다. 언급술을 다룬 그의 책들이 그의 정신분석학적 통찰에 조금의 무게라도 보태는 것 같지는 않다.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표현한 수많은 문구는 마리 베커와의 대화에 빚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그녀의 섬세함과 현실 감각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친절하게도 프로이트에 대한 크나큰 지식의 그물로 6 장을 걸러준 폴 로즌에게 감사한다(하지만 이 책의 오류는 모두 내 책임이다). 로버트 N. 벨라는 전체 원고를 읽었으며, 그의 전반적 비평과 구체적 조언에 무척 감사한다. 내가 따를 수 있는 조언들은 이 책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그 밖의 조언들은 나 자신을 바꿔야 하는 거대하고 장기적 과제가 되었다.

주

참고: 오토 랑크의 아래 저작들은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어로 표기한다.

- PS *Psychology and the Soul*, 1931 (New York: Perpetua Books Edition, 1961).
ME *Modern Education: A Critique of Its Fundamental Ideas* (Agathon Press, 1968).
AA *Art and Artist: Creative Urge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gathon Press, 1968).
WT *Will Therapy and Truth and Reality* (New York: Knopf, 1936; One Volume Edition, 1945).
BP *Beyond Psychology*, 1941 (New York: Dover Books, 1958). 한국어판은 『심리학을 넘어서』 (부글북스, 2015).

랑크의 다른 저작들에 대한 새 번역의 발췌문은 *Journal of the Otto Rank Association* 와 랑크의 강연과 대화 녹취록에 실려 있다. 이 간행물은 JORA 로 약칭한다.

노먼 O. 브라운의 *Life Against Death: The Psychoanalytical Meaning of History* (New York: Viking Books, 1959)도 즐겨 인용했으며 LAD 로 약칭한다.

여러 저자들의 논문과 단행본 중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것은 처음에는 서지 사항을 전부 밝히지 다음부터는 약어로 표기했다.

1. Rank, 1933 년 2 월 8 일자 편지, 출처는 Jessie Taft 의 빼어난 전기 *Otto Rank* (New York: Julian Press, 1958), p. 175.
2. LAD, p. 322.
3. F. S. Perls, R. F. Hefferline, and P. Goodman, *Gestalt Therapy* (New York: Delta Books, 1951), p. 395, note.
4. I. Proff, *The Death and Rebirth of Psychology* (New York: Delta Books, 1964).
5. P. Roazen, *The Virginia Quarterly Review*, Winter, 1971, p. 33.

1 장

머리말: 인간 본성과 영웅적인 것

우리 시대와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관념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사람들은 필수적 사상을 향한, 또한 불필요하게 복잡한 지식을 단순화하려는 충동을 느낀다. 이따금 이 때문에 긴장을 해소하는 커다란 거짓말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오로지 사람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합리화만 가지고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게 해주고 문제가 진짜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진실로부터는 서서히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알려진 그런 필수적 진실 중 하나로 **영웅주의** 개념이 있다. 학문이 ‘정상적’이던 시절에는 영웅주의를 썩먹거나 칭송하거나 중심 개념으로 이용할 생각을 누구도 해본 적 없지만, 대중은 영웅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알고 있었다. (안 다룬 주제가 없는) 윌리엄 제임스는 20세기 들머리에 “인류가 공유하는 현실 본능”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현실은 사실상 세상이 본질적으로 영웅주의를 위한 극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¹ 대중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철학자,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에머슨과 니체도 이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여전히 이들에게 회열을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주된 소명, 이 땅에서의 주요 임무가 영웅적인 것임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마르크스 이후 사회과학과 프로이트 이후 심리학의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인간 영웅주의의 문제를 상술하고 규명하는 대규모 작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우리가 이 논의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제 우리는 영웅주의의 본성과 영웅주의가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과학적 토대를 갖췄다. 만일 “인류가 공유하는 현실 본능”이 옳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놀라운 위업을 달성한 것이다.

인간의 영웅주의 충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자기애’ 관념이다. 에리히 프롬이 훌륭히 설명했듯 이 관념은 프로이트의 위대하고도 영속적인 업적 중 하나다. 프로이트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의 비극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대책 없이 빠져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 대체로 그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다. 아리스토텔

텔레스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했다. 행운이란 내 옆에 있는 자가 화살을 맞는 것이라고. 25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인간의 기본적 자기애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여전히 행운의 정의로 손색이 없다. 자신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람이 소모품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애의 편협한 측면 중 하나다. 에머슨 말마따나 우리는 설령 아무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신으로부터 온 세상을 얼마든지 재창조할 수 있다고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 우리는 남들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밑바탕에는 기본 재료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에머슨이 바란 대로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면, 혼자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이 신뢰가 감정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든 개의치 않고 온 힘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애쓴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홀로 채운다는 생각에 움찔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얼마든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자기애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총구 앞으로 행진하게 하는 비결이다. 사람들은 내심 **자신**이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안쓰러워할 뿐. 이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은 무의식이 죽음이나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은 자기 내면의 생리화학적인 유기적 구석에 틀어박힌 채 자신이 불멸이라고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교활하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을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이기심은 동물적 본성에서 비롯하는 듯하다. 헤아릴 수 없는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유기체는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야 했다. 유기체는 제 나름의 생리화학적 정체성이 있었으며 이를 보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것은 장기 이식의 주된 어려움 중 하나다. 새 심장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더라도 유기체는 그 이물질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한다. 원형질은 스스로 안에 갇혀 있으면서 세상과 외부의 침입에 맞서 스스로를 보살핀다. 원형질은 스스로의 박동을 즐기는 듯하며, 세상으로 확장되어 그 조각을 섭취한다. 눈 멀고 귀 먼 유기체를 데려다 자의식과 이름을 부여하면, 또한 그것이 자연과 동떨어져 자신이 고유함을 의식적으로 알게 하면, 그것은 자기애를 가질 것이다. 인간은 생리화학적 정체성을, 또한 권력과 활동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낀다.

인간에게서는 필요 수준의 자기애를 자존감 self-esteem 과, 또한 기본적인 자기가치감 self-worth 과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을 확고하게 느끼는 것임을 배웠다 (주로 알프레트 아들러에게서). 하지만 인간은 그저 한가로이 노니는 원형질의 눈먼 덩어리가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서 단지 물질이 아니라 상징과 꿈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그의 자기가치감은 상징적으로 구성되며 그가 소중히 여기는 자기애는 상징을 먹고 산다. 상징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추상적 관념이요, 공기 중과 마음 속과 종이 위에서 소리와 말과 상으로 이루어지는 관념이다. 이는 유기체적 활동에 대한, 또한 통합과 팽창의 쾌락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열망을 상징의 영역에서, 따라서 영원불멸도

록 무한히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의 유기체는 물리적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서도 세계와 시간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면서도 영원을 내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어릴 적에는 자존감을 얻으려고 투쟁할 때 꾸미는 법이 없다. 아이는 가장 자신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신의 자연적 자기애가 요구하는 것을 온몸으로 외친다. 이렇게 요구하는 아이는 주위 어른들에게 지옥과 같다. 아이 여러 명이 한없는 자기확장의 특권을 차지하려고 경쟁할 때면 더더욱 그렇다. 이 특권을 ‘우주적 의미’라고 불러도 좋을 텐데, 이 용어는 예사롭게 넘길 만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논의가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제간 경쟁’이 성장의 부산물인 양, 너그러운 사교성을 익히지 못한 버릇없는 아이가 가진 약간의 경쟁심과 이기심인 양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형제간 경쟁은 일탈이라기에는 너무나 치열하고 집요하다. 이것은 존재의 핵심, 즉 돋보이려는 욕망, 피조물 중 **단 하나**가 되려는 욕망의 표출이다. 타고난 자기애가 기본적 자존감 욕구와 결합되면 자신을 일차적 가치의 대상으로—우주 첫 번째로, 또한 모든 생명을 자신 안에서 표상하도록—느껴야 하는 피조물이 탄생한다. 형제들이 매일같이 (대체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아이는 2등이 되거나 낮잡아보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따돌림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빠한테 제일 큰 사탕 줬잖아요!” “주스도 더 줬고요!” “그럼 너도 좀 더 줄게.” “재가 저보다 주스 더 많잖아요!” “왜 재가 모닥불에 불 붙여요?” “알았어. 여기 종이로 불 붙이렴.” “근데 이 종이는 재 거보다 작다고요.” 한도 끝도 없다. 자신의 가치감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동물은 자신을 주변 존재들과 세심하게 비교하여 자신이 두 번째로 전략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다. 형제간 경쟁은 기본적인 인간 조건을 반영하는 중대 문제다. 아이들이 못됐거나 이기적이거나 호승해서가 아니다. 이 경쟁이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자신을 우주에서 제일 가치 있는 대상으로 필사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돋보이고 영웅이 되고 세상에 최대한 기여하고 자신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중요함**을 입증해야 한다.

인간이 영웅이 되려고 분투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 욕망이 그의 진화적·유기체적 구성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가 어릴 적에 이 욕망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 이해하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이토록 (의식적으로) 무지한 것이 더더욱 의아스럽다. 어쨌든 우리 문화, 특히 현대 문화에서 영웅적인 것은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인다. 우리가 그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젊은이에게 그가 영웅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해보라. 얼굴이 빨개질 것이다. 우리는 영웅적 가치감을 은밀히 반영하는 통장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자신의 투쟁을 위장긴다. 아니면 그저 동네에서 좀 더 좋은 집이나 더 큰 차나 더 똑똑한 자녀를 가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관심사로 허울을 씌워도 그 아래에서는 우주적 특별

함을 향한 열망이 고동친다. 이따금 영웅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대다수 사람을 전율하게 한다. 미 의회 의원 멘덜 리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군사 행위에 예산을 지원했으며 자신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후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카이사르에게서든 그의 모방자에게서든 세속적 영웅주의의 우둔함에 치를 떨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 잘못이 아니다. 사회가 그런 식으로 영웅 체계를 세우고 사람들 속에서 그 역할이 충족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영웅주의 충동은 자연스러우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솔직한 처사다. 영웅주의 충동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웅주의는 억눌린 힘을 분출하여 지금처럼 사회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늘 이런 식이다. 사회란 세속적 영웅주의의 매개체로 설계된 상징적 행위 체계, 지위와 역할의 구조, 행동의 관례와 규칙이다. 각 구조는 나름대로 고유하며 각 문화는 저마다 다른 영웅 체계가 있다. 따라서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문화 상대성'은 사실 전 세계 영웅 체계의 상대성이다. 하지만 각 문화 체계는 세속적 영웅성을 극화한 것이다. 각 체계는 처칠, 마오, 부처의 '숭고한' 영웅주의에서 광부, 농부, 하급 성직자의 '저급한' 영웅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 역할을 규정해두었다. 뼈마디 굵은 손으로 굶주림과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건사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영웅주의도 있다.

문화적 영웅 체계가 노골적으로 주술적인지, 종교적인지, 원시적이거나 세속적인지, 과학적인지, 문명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사람들은 일차적 가치감, 우주적 특별함, 창조에 대한 궁극적 유용함, 단단한 의미를 얻기 위해 이 신화적 영웅 체계에 봉사한다. 사람들이 이 느낌을 얻는 방법은 자연에서 장소를 깎아내는 것이자, 신전, 성당, 토템 기둥, 마천루, 삼 대에 걸친 가족처럼 인간적 가치를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들의 바람과 신념은 인간이 사회에서 창조하는 것이 영속적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 자신이 죽음과 부패보다 오래 살아서 빛나는 것, 인간과 자신의 산물이 인정받는 것이다. 노먼 O. 브라운은 뉴턴 이후의 서구 사회가 (아무리 과학적이거나 세속적이라고 주장하든) 여전히 어느 사회 못지않게 '종교적'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문명' 사회는 사회와 돈, 재화가 **인간을** 어느 동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희망찬 신념이자 항변이다. 이 점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종교적이고 영웅적이며, 그럼에도 허황하고 틀릴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에게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영웅적 느낌을 얻기 위해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의식하고 있을까?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웅 충동을 솔직히 인정하면 진실이 파괴적으로 분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문화가 자신에게 정당한 몫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그 몫이란 우주적 삶에 고유하게 기여한다는 일차적인 인간적 가치감이다. 우리의 현대 사회가 토대까지 흔들리지 않고서 그런 솔직한 요구를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날 ‘원시적’이라고 부르는 사회만이 구성원에게 이런 느낌을 선사했다.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을 달라고 외치는 소수 집단은 사실 자신들이 그동안 속아서 빼앗긴 일차적인 영웅적 감각을 달라고 꼴사납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들의 끈질긴 주장이 그토록 골치 아프고 심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 그렇게 ‘비합리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흔히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말로 이러한 당혹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영웅주의 욕구에 대한 진실을 누구나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조차도 주저한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후의 논의에서 보겠지만, 자신이 영웅적 느낌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의식하는 것은 인생의 주된 자기분석 문제다. 정신분석학의 천재와 종교의 천재가 인간에 대해 발견한바 고통스럽고 진지한 모든 것은 자신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인정해야 하는 공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인간적 영웅성이 사람들을 불태우는 맹목적 충동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영광을 요구하는 외침은 개 짖는 소리만큼이나 무비판적이고 반사적이다. 평범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더 수동적 대중은 사회가 영웅성을 위해 제시하는 역할을 겸손하고 마지못해 따르고 체제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함으로써 영웅주의 충동을 감춘다. 그들은 표준적 제복을 입으면서도 (머리와 어깨가 아닌) 작은 리본이나 빨간 부토니에르(양복 가슴에 꽂는 꽃_오키)로 돌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사소하고 너무 안전한 방식이다.

이 거대한 가림막, 영광을 얻기 위한 인간적 수법에 대한 거대한 억압을 견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해방적일 수 있는 물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지탱하고 추동하는 문화적 영웅 체계가 얼마나 **경험적으로 침인**가다. 인간의 우주적 영웅주의 충동에 천박한 면이 있음은 이미 언급했지만, 여기에는 고귀한 면도 있다. 인간은 자신의 나라, 사회,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려놓는다. 인간은 동료들 위해 수류탄 위에 몸을 던지고, 지고한 아량과 자기희생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신이 진정으로 영웅적이고 시간을 초월하고 숭고한 의미를 가진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믿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위기는 바로 문화가 만들어놓은 행동 계획에서 젊은이들이 더는 영웅적인 것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영웅적 행동이 삶과 시간의 문제에 경험적으로 부합한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영웅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는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에 뻗어 있다. 대학의 영웅주의, 기업과 경력의 영웅주의, 정치적 행동의 영웅주의가 폐기되고, 반영웅이 떠오른다. 이 반영웅은 나름의 방식으로 영웅적이거나 찰스 맨슨과 그의 특수한 ‘가족’과 같으며, 이들의 비틀린 영웅주의는 합의된 영웅주의를 더는 스스로 표상하지 못하는 체제에 채찍을 휘두른다. 우리 시대의 거대한 당혹감, 우리 시대의 혼돈은 젊은이들이 거대한 사회역사적 진실을 (좋은 나쁜) 감지했다는 사실이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서 무의미한 자기희생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의 비

열한 영웅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히틀러 독일의 지독히 파괴적인 영웅성일 수도 있고 소비재의 획득과 과시, 자본주의와 소련을 막론하고 현재 삶의 총체적 방식을 특징짓는 돈과 특권의 축적이라는 천박하고 어리석은 영웅성일 수도 있다.

물론 사회의 위기는 제도 종교의 위기이기도 하다. 종교는 더는 영웅 체계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젊은이들은 종교를 조롱한다. 전통 문화가 영웅성의 자격을 잃으면 그 문화를 뒷받침하는 교회도 저절로 자격을 잃는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자신의 특수한 영웅성을 고집하기로 한다면, 문화에 저항하고 젊은이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생활 방식에 맞서는 반영웅으로 소환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 시대 종교가 처한 딜레마다.

결론

이 짧은 머리말에서 나는 영웅성의 문제가 인간 삶의 중심 문제이며 이 문제가 어느 것보다 인간 본성 깊숙이 파고든다고 주장했다. 영웅성의 문제는 유기체의 자기에 바탕을 두며 삶의 **유일한** 조건으로서의 자존감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토대로 삼는다. 사회는 그 자체로 성문화된 영웅 체계인데, 이는 어디에서나 사회가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한 살아 있는 신화이자 의미의 반항적 창조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종교적'이다. 소련 '종교'와 마오주의 '종교'는 과학적 '종교'와 소비자 '종교'처럼 진정으로 종교적이다. 자신의 삶에서 종교적 관념과 영적 관념을 제거하여 아무리 자신을 위장하려 해도 소용없다. 뒤에서 보겠지만 인간의 모든 문화적 창조물에 담긴 이 종교적 성격을 심리학적으로 밝힌 사람은 오토 랑크다. 최근에는 노먼 O. 브라운이 『죽음에 반하는 삶 Life Against Death』에서,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 『혁명적 불멸 Revolutionary Immortality』에서 이 개념을 되살렸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유일한** 보편적 인간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최대한 솔직하게 탐구하고 최상의 사유가 허용하는 한 인간의 자기현시에 충격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키르케고르에게서 이 사유를 뽑아내어 프로이트를 거치면 이렇게 추린 지난 150년의 정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몇 권의 책에 담긴 예리한 정직성이 당장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방금 언급한 다섯 저자는 이미 세상을 뒤흔들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인간에 대한 필수적 진실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듯 살아가기에, 인간적 자기노출의 규모에 또 다른 희망을 걸어야 한다. 지난 2500년간 우리는 인류가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동기를 널리 알 수 있다면 균형을 유리한 쪽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희망하고 믿었으니 말이다.

주

1. William James,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1902 (New York: Mentor Edition, 1958), p. 281. 한국어판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한길사, 2009) 447 쪽.

*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나머지 장의 토대를 놓기 위해 내가 다른 곳에 쓴 글(*The Birth and Death of Meaning*, Second Edition, New York: Free Press, 1971)을 반복하고 요약했다.

추천사

폴리처 상 수상작

“이 책은 남들이 조각조각 찢어 쓸모없게 만든 것을 다시 모은다. 여러분의 생각, 지적 호기심, 영혼을 자극하는 드문 걸작 중 하나다.”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의학박사, 『죽음과 죽어감』 저자

“최근 10 년간 가장 도전적인 책 중 하나다.”

— 애너톨 브로이어드, 《뉴욕 타임스》

“훌륭한 정신철학적 종합이며, 올해의 진정으로 중요한 책으로 손꼽을 만하다. 베커 교수의 글에는 설득력과 빛나는 통찰이 담겼으며 정신분석과 이성 자체의 한계를 가차 없이 능숙하게 규명하여 인간이 죽음과 삶의 상충하는 공포를 초월하도록 한다. 그의 책은 대작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이 책을 읽으면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여 새로운 종합을 빛나는 마음의 전개 과정에 내재한 기쁨을 알게 된다. 『죽음의 부정』은 걸작이다. 20 세기, 아니 모든 세기를 통틀어 위대한 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 《앨버커키 저널 북 리뷰》

“박식한 달변의 교수가 쓴 빼어난 책. 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토 랑크, 쇠렌 키르케고르, 카를 융, 에리히 프롬 같은 거장의 이론에 놀라운 통찰을 담아낸다. 베커는 걸작을 썼다.”

— 《베스트 셀러스》

“정신철학 천재들의 사상을 부활시키고 소생시키는 인간학의 탁월하고도 열정적인 종합. 『죽음의 부정』은 이 사상들을 명료하고 아름답고 놀랍도록 간결하게 조합하여 인간의 의미 있고 합리적인 생존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유기적 이론 체계를 구축한다.”

— 《미니애폴리스 트리뷴》

“대단하다. 의미 있는 ‘인간 과학’을 창조하려는 베커의 시도는 정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승리를 거뒀다. 사회학자와 이론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유한한 존재들에게 말을 거는 감동적이고 중요하고 필수적인 저작이다.”

— 《코먼웰》

“짜릿한 지성과 열정이 담긴 낙관적이고 혁명적이고 길이 남을 대담한 역작.”

— 《뉴욕 타임스 북 리뷰》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들에 대한 탁월하고도 필사적으로 필요한 종합. 이 책은 남들이 조각조각 찢어 쓸모없게 만든 것을 다시 모은다. 여러분의 생각, 지적 호기심, 영혼을 자극하는 드문 걸작 중 하나다.”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의학박사, 『죽음과 죽어감』 저자

“균형 잡히고 설득력 있고 독창적이다. 그는 점진적으로 또한 신중하게, 박식함과 활력을 발휘하며 정교한 정신분석적 사고(와 이따금 불거지는 혼란)와 총체적 철학 문헌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 《워싱턴 포스트 북 월드》

“심리학과 신학에 대한 우리 시대의 방대한 탐구의 종합에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기여한 책.”

— 《보스턴 헤럴드 아메리칸》

“이 책에는 매혹과 재기가 스며 있다. 죽음에 대한 견해를 연구한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틀림없이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는 책 중 하나다.”

— 《미네소타 데일리》

“인간의 본성과, 삶(과 죽음)의 집에서 벗어나려는 부단한 노력에 대한 신학적 통찰과 심리학적 통찰의 심오한 종합. 이 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베커는 자신의 목표를 눈부시게 달성했으며 그의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 《시카고 선 타임스》

『죽음의 부정』은 1974년 풀리처 상 수상작이자 일생의 역작으로, 인간 존재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어니스트 베커의 눈부시고 열정적인 대답이다. 베커는 주류 프로이트 학파 사상에 대담하게 맞서 필수적 거짓말의 문제—자신의 필멸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정면으로 맞닥뜨린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새로운 빛을 비추며 삶과 살아감을 요청한다. 그의 요청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여 새로운 종합을 빚는 마음의 전개 과정에 내재한 기쁨을 알게 된다. 『죽음의 부정』은 걸작이다. 20세기, 아니 모든 세기를 통틀어 위대한 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 《앨버커키 저널 북 리뷰》

“이 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베커는 자신의 목표를 눈부시게 달성했으며 그의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 《시카고 선 타임스》

어니스트 베커 박사(1924~1974)는 시리큐스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서 가르쳤다. 유족으로 아내 마리가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어니스트 베커 재단이 설립되었다.